

미래대전기획위원회 자문회의 개최 - 행복도시의 국가미래비전 창조와 대전시의 역할 -



대전발전연구원 주최로 8일 오전 10시 '행복도시의 국가미래비전 창조와 대전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회의실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엄홍철 시장, 이충재 행복청장,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과 김안제 전 신항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연숙 전 정무제2장관,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형국 전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송하중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김대유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형국 전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최병선 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등 미래대전기획위원회 고문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진수 행복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계획 및 추진현황 등에 설명하며 세계 일류의 명품도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이창기 원장은 '대전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대전시와 세종시의 개별적 도시발전이 아닌 새로운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지역발전 방안 모색해야 되는 점을 설명했다.

송하중 고문은 세종시와 대전시의 적절한 관계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전의 문화, 교육 등의 강점과 세종시의 정책, 연구(인문사회) 등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상호간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상생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김형국 고문은 대전시와 세종시의 상보관계는 먼저 서울과 과천시 사이에 있었던 경험이 중요 증거 자료라며 앞으로 두 업적 도시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새로 생긴 도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어야만 탄력을 받을 수 있음을 제안했다.

이연숙 고문은 대전과 세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외국어를 특성화해 동남아, 중국 등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한다면, 다른 도시들과 차별성을 가지면서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안제 고문은 세종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전, 세종, 행복청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동연구도 하면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함을 강조했다. j

서울대학교 공공리더십 아카데미 1기 순항식

서울대학교가 후원하고 대전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서울대학교 공공리더십 아카데미 제1기 과정이 8개월여의 과정을 마치고 16일 오후 8시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순항식을 열었다.

순항식에는 서울대 공공리더십 센터 조영달 소장, 광영교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1기 수강생들과 2기 수강생들과 이 함께 참석해서 축하의 시간을 나누었다.

이날 이창무 전 서울대학교 총장의 '미래 사회의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으며, 이후 순항식이 이어졌다.

순항식에서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저희가 이 과정을 만들었던 첫 번째 동기는 세종시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도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27가지가 발목이 잡혀있다. 이는 남북분단 문제, 공공성의 퇴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통일의 기반을 만들어가면서 공공성을 유도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항식은 이수증 전달식, 공로패 수여식, 봉사패, 기어패, 창의상 시상, 인증패 전달식, 감사패 시상 등으로 이어졌다. j

“ 충청권 교통의 현 주소와 미래비전 세미나 개최 ”



한국교통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은 "충청권 교통의 현 주소와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10월 8일 대전 리베라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세종시 건설,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충청권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추진됨에 따라, 충청권 교통의 현 주소와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국교통연구원과 충청권 3개 시·도 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교통학회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 개최에 앞서 한국교통연구원과 충청권 3개 시·도 연구원은 연구원간 공동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인력 교환, 공동연구 수행, 정보공유 차원의 연구교류협정(MOU)을 맺음으로써 향후 연구원간 활발한 연구교류·협력으로 지역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기대된다.

연구원간 연구교류협정식에 이어 개최되는 이날 세미나는 김경철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의 개회사 및 3개 시·도 연구원장(대전 이창기 원장, 충북 정낙형 원장, 충남 강현수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4개 연구원에서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학계교수,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토론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제1 주제는 "충청권 광역교통의 현황 및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교통연구원 유정복박사가 발표하였다. 유정복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향후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전, 충북, 충남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광역교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제2 주제는 "충청권 광역대중교통 통합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대전발전연구원 이범규박사가 발표하였다. 이범규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충청권 대중교통 이용객의 요금부담 완화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충청권 대중교통의 통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환승기준, 요금체계, 정산방법 등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 주제는 "충청권 청주공항 연계교통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충북발전연구원 오상진박사가 발표하였다. 오상진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청주공항의 현황과 충청권 각 자치단체에서 공항접근시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가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주공항 연계교통체계 개선사업을 검토하여, 향후 충청권 청주공항 연계교통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 주제는 "충청권 서해안 미래비전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전략"이라는 주제로 충남발전연구원 김원철박사가 발표하였다. 김원철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충청권 서해안의 위상과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충청권 서해안 및 내륙의 공간 및 물동량 변화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필요성과 구축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한밭대학교 김명수 교수(대한교통학회 대전·충청지회장)의 사회로, 국토교통부 안석환 도시광역교통과장, 대전광역시 백영중 교통정책과장, 충청북도 이태훈 교통물류과장, 충청남도 인병량 도로교통과장, 한국교통대학교 오주택 교수, 공주대학교 안우영 교수 그리고 충청투데이 이의형 편집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충청권 교통의 미래비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j

“ 대전지방경찰청, 안전IT융합지원센터와 MOU 체결 ”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은 7일(월) 오후 2시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를 위한 시책 개발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관 간 상호 협력을 위해 대전지방경찰청, 안전IT융합지원센터와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전발전연구원장, 안전IT융합지원센터장 등 도시안전디자인 포럼의 분과위장 전원과 청장, 각 과장·담당관 등 대전경찰 지휘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관 간 공동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요 협력사업으로 대전시의 안전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O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를 적용하여 여성안심구역 등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확보 지킴'로 미련하고, 도심공원 리모델링 사업, 자동제세동기(AED) 보급 사업 등을 전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간담회 및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자료를 공유, 공동으로 발간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대전발전연구원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대전이 전국에서 제일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j

“ 2013 대전청년문화예술제 개최 ”



대전광역시 주최하고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이 주관한 2013 대전 청년문화예술제가 12일(토) 14:00부터 대전뿌리공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청년문화예술제는 지역사회와 대학생들과의 상생 및 연계 실천 활동을 강화하고, 대전지역 젊은이들의 문화 지평을 넓히고자 올해 처음 개최되었으며, 주로 대전시 관내 대학생 및 대학동아리들을 대상으로 참가 접수를 받고 공연과 비공연 부문으로 나누어서 경연대회를 가졌다. 또한, 경연대회 이외에도, 대학에서 운영되는 과학, 미술, 캐리커처, 페이스

페인팅, 전통문화체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전시·체험꾸며져 참가자와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대전발전연구원 이창기 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청년 문화예술제를 통해서 대전지역 젊은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전 지역의 문화인프라를 한단계 확충하고자 하였으며 대학생들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교류의 공간을 만들고자 올해 처음 개최하였다. 또한 이번 행사가 호문화뿌리축제와 접목하여 진행되는 만큼 젊은이들 게 경로호천시상도 고취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전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축하사에서 "2013대전청년문화예술제가 호문화뿌리 축제와 어우러져 진행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날 행사를 통해 젊은이들의 끼를 마음껏 뽐내고 아울러 우리 조상의 뿌리와 지혜를 찾아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경연에서는 대상(대전광역시시장상)2팀에 동아인재대 미술공연팀과, 대전보건대 도레미팀이 수상했고, 최우수상(대전발전연구원상) 4팀에 혜천대 시저스, 한밭대 TENZ1, FEW Revolution beatbox, 대한사랑 동아리가 각각 선정됐다. d



“ 대전발전연구원 2013년도 연구자문위원회 개최 ”

- 2014 주요연구사업 및 연구원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다 -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은 10월 24일(목) 11시에 2014년도 주요연구 사업에 대한 자문과 연구원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자문위원회에서는 연구원의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과제와 대전시 등으로부터 제인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자문과 연구원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에서 김혜천 목원대 교수는 "연구원의 대외적인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연구원들의 업무량이 과중되고 있어 연구의 질이 낮아질까 염려스럽다며 이러한 점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고, 더불어 연구의 방향이 미래지향적이며 국책사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큰틀의 과제도 수행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동국 교수는 수행된 지난 연구과제들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하게 이루어졌는데 시정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또한, 방재, 자연재해 관련 분야의 관심과 연구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다문화관련 정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와 연구, 문화지표 조사를 위한 연구, 대전지역의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연구, 공무원들과의 긴밀한 관계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이창기 원장은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연구과제 간수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지속적인 노력, 지역의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고민할 것이며, 연구내용이 시 정책에 적절하게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다"고 답하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연구원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d

“ 제5차 대전사회적자본 포럼” 개최 ”

- 사회적자본 중간지원기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 모색 -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 사회적자본연구센터(센터장 최길수)에서는 대전시 사회적자본 중간지원기관의 역할과 과제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자본 포럼을 29일(화) 오후 2시 대전사회적자본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발전방향박영선 참여사회

연구소 연구실장"과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방향과 과제(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센터장)를 주제로 우리 지역의 관련 전문가와 풀뿌리사람들, 시민단체, 대전형 마을만들기 사업 선정단,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박영선 실장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로, 첫째, 믿고 밀어준다(역량 강화), 둘째, 배워서 남준다(공유와 확산), 셋째, 흠어져 조금씩 같이먹는대(토대 구축), 끝으로 멀리 보고 함께 일한다(비전과 구상)는 것으로 강조했다.

이어 김제선 센터장은 시민이 시민을 돕는 행복한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6대 인프라와 네 가지 원칙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 마을 리더 및 멘토 네트워크 등의 발굴·육성·지원, 지역 자원 연계나 우수사례 공유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자본 정착과 안정화 및 자원 등이 향후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위치와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양홍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사회적경제라는 내용 안에 환경에 대한 관심과 내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박정호(일뽕마을 어린이 도서관) 관장은 "주민 활동에 대한 자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ㄷ

“ 성 주류화 제도 추진 한계 극복을 위한 전문가 및 시·구 분석평가책임관 워크숍 개최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10월 29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및 연구원, 컨설턴트, 우수 자치단체 공무원)와 시분청 및 구청 공무원(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담당, 담당자, 성인지예산 담당 등), 대전

광역시의회 의원 등 약 40명을 대상으로 2013년도 대전광역시 성 주류화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대전광역시가 주관 한 이번 워크숍은 2014년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본격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 추진 상황을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더불어 타시도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하여 업무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우수사례"를 발표한 경기도청 여성가족과 안선덕 주무관은 "2012년 8월 11일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경기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독립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경기도 정책의 성인지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정책개선 실적이 89%에 달하는 전국 최대 기록을 달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ㄷ

“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 21세기 저명지성인 선정 ”

이창기 원장(사진)이 영국 국제인명센터(IBS)의 '21세기 저명 지성인'에 선정됐다. 21세기 저명 지성인은 독특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세계 교육자와 전문가 2000명을 선정해 부여하는 명예로운 기록물이다.

이 원장은 1985년부터 현재까지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관관계의 발전을 위한 행정학이론개발과 실천에 앞장 서는 등 행정학개론, 도시행정론 등 10권의 저서와 국내·외 학술지에 60여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또 대전충남행정학회 회장, 한국정치정보학회 회장, 서울행정학회 회장, 대전대 인적자원개발원장, 대전발전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이론과 실제의

접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특히 대전발전연구원장으로서 좋은 사회이론을 바탕으로 평생학습진흥과 사회적 자본확충, 도시안전 확보 등을 현장에 실현하려는 노력이 학계로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한편 이창기 원장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에너지환경경지도시를 양성하고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쌓아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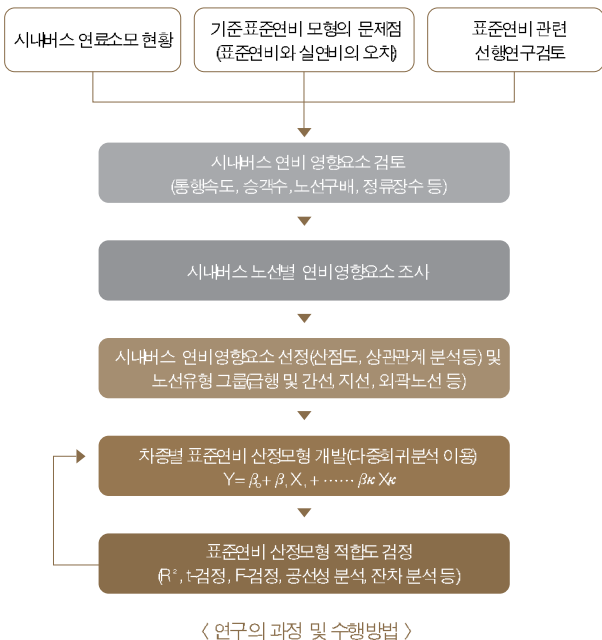


대전시 시내버스 표준연비 산정에 관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도시기반연구실 책임연구원 이 범 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시내버스 운송원가에서 인건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료비로 총 운송원가의 약 20%를 차지(2012년 기준 총 연료비는 325억원 소요)
- 대전시는 버스업체의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차종별 표준연비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시내버스 업체에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표준연비 산정식이 노선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어 업체의 만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 일부 노선의 경우 실제 소모된 연료비와 표준연비 산정치간의 오차 발생으로 어떤 업체는 연료비가 남고, 어떤 업체는 연료가 모자라는 현상 발생
 - 시내버스 업체의 연비절감 노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료비 지급방식의 합리화를 통한 신뢰구축이 중요
- 이에 따라 대전시 시내버스 운영업체를 중심으로 표준연비의 재산정 요구가 증가
- 본 연구는 시내버스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고, 각종 통계 기법을 동원하여 합리적인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형평성 있는 연료비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



< 연구의 과정 및 수행방법 >

2 시내버스 연료비 및 연비 현황

1. 연료비 및 연비 현황

- 대전시 시내버스 대당 연료비는 1일 대당 103,080원이 소요되고 있음
 -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지자체 중 유일하게 표준연비로 연료비 지급

- CNG 연료를 사용하는 도시형 일반버스 기준으로 대전시 시내버스 연비는 2.37km/m이며, 이 또한 타 광역시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임
 - 이러한 현상은 대전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운전습관과 교통 특성 요인이 클 것으로 판단됨

「준공영제 운영도시 1일 대당 유류비 및 평균연비 비교(일반 대형CNG버스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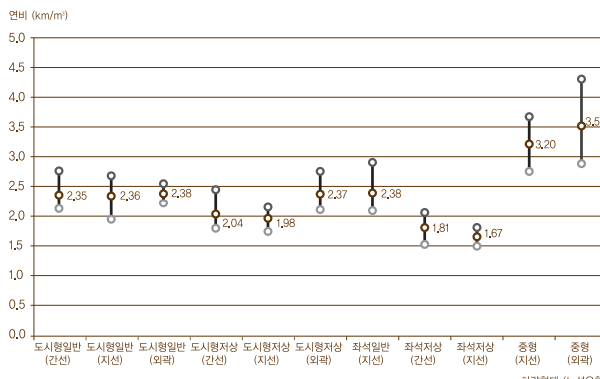
구분	1일 대당 연료비(원)	평균 연비(km/m)
대전	103080원	2.37
서울	134900원	1.88
부산	130000원	1.88
광주	130000원	1.81

2. 차량 형태별 · 노선 유형별 연비 특성

- 대전시 시내버스 회사(13개 업체)의 실연비 자료를 보면, 도시형과 좌석형 일반버스의 평균 연비는 각각 2.35km/m, 2.37km/m로 거의 유사하며, 도시형 저상버스의 연비가 약 15% 낮은 2.01km/m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좌석형 저상버스의 연비가 가장 낮은 실정으로 일반 CNG버스에 비하여 약 26% 낮은 1.74km/m를 보임
- 노선유형별(간선노선, 지선노선)로는 큰 차이가 없으며, 간선노선 보다 지선노선의 연비가 조금 낮게 나타남

「대전시 시내버스 차량 형태별 · 노선 유형별 평균연비 (k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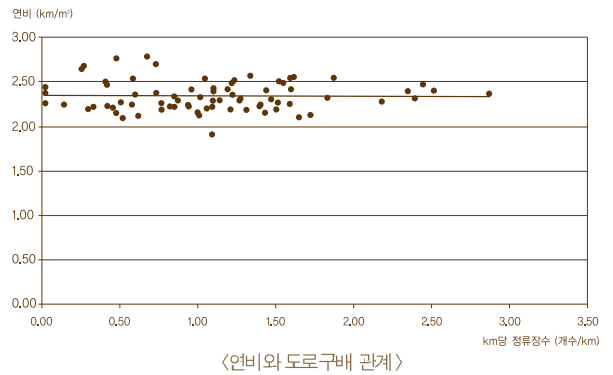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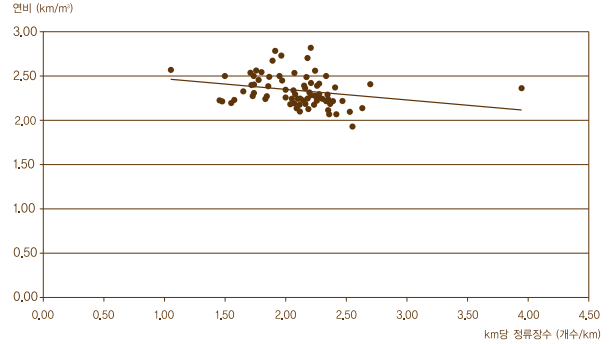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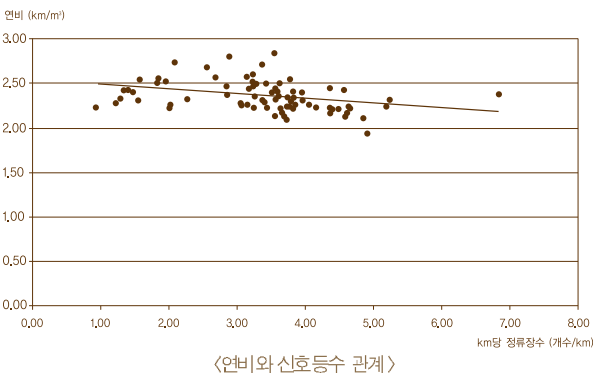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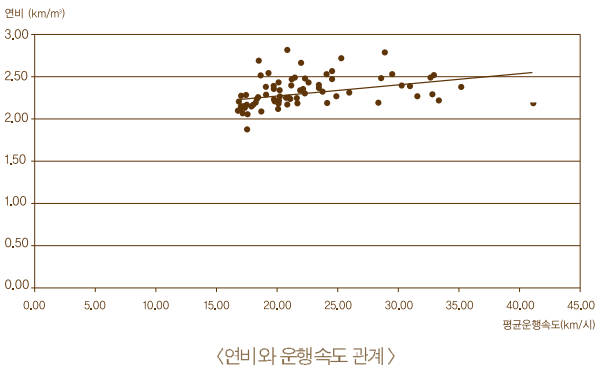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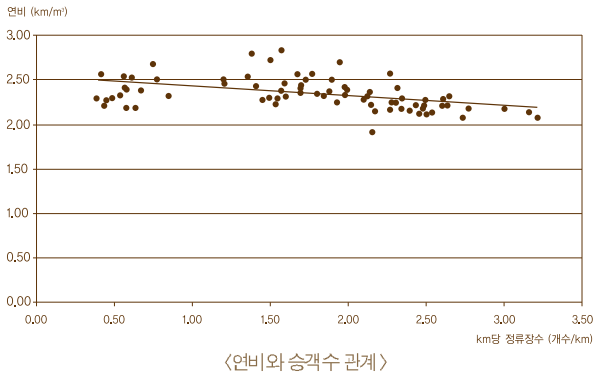
구분	간선노선	지선노선	외곽노선
도시형 일반버스	2,349	2,357	2,381
도시형 저상버스	2,042	1,980	-
좌석형 일반버스	2,371	2,377	-
좌석형 저상버스	1,815	1,665	-
중형버스	-	3,200	3,504



< 차량 형태별·노선 유형별 연비 Box-plot >

3 시내버스연비 영향요인 분석 (도시형 일반 CNG버스기준)

- 승객수와 연비간에는 승객수가 많을수록 연비는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운행속도와 연비간에는 운행속도가 높을수록 연비가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신호등수와 연비간에는 신호등수가 많을수록 연비가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정류장수와 연비간에는 정류장수가 많을수록 연비가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상관관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도로구배와 연비간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4 표준연비 산정모형 개발

- 차량유형별, 노선유형별 선정된 영향요인(설명변수)과 연비(종속 변수)간의 회귀모형을 통하여 표준연비 산정모형식을 개발함

$$Y = \beta_0 + \beta_1 X_1 + \dots + \beta_k X_k$$
 - 여기서, Y는 종속변수, β_k 는 k번째 독립변수(X_k)의 회귀계수, β_0 는 상수
- 회귀모형은 전진선택법, 후진제거법을 모두 이용하여 R^2 , t-검정, 자기상관계수(Durbin-Watson) 만족하는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 하였으며, 모형에 대한 t-검정, 공선성(VF), R^2 , F-검정, 잔차분석 등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여 최종 모형으로 채택함(차량 유형별 노선 유형별 13개 모형 도출)

「준공영제 운영도시 1일대당 유류비 및 평균연비 비교일반대형 CNG버스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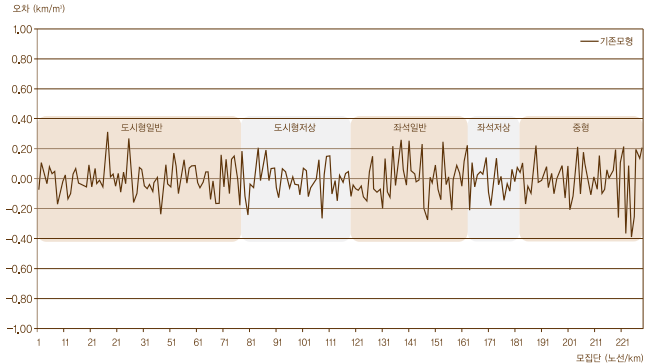
구분	노선유형	모형식	설명변수
도시형일반	간선	$Y = -0.153X_1 + 0.030X_2 + 2063$	승객수, 운행속도
	지선	$Y = -0.157X_1 - 0.108X_2 + 3061$	승객수, 신호등수
	외곽	$Y = 2,380$	없음
도시형저상	간선	$Y = -0.085X_1 + 0.032X_2 + 1570$	승객수, 운행속도
	지선	$Y = 1,980$	없음
좌석일반	간선	$Y = -0.033X_1 + 1,691$	운행속도
	지선	$Y = -0.063X_1 + 1,121$	운행속도
좌석저상	간선	$Y = -0.121X_1 + 0.028X_2 + 1559$	승객수, 운행속도
	지선	$Y = -0.084X_1 + 2001$	신호등수
중형	지선유형 A	$Y = -2.096X_1 + 3654$	구배
	지선유형 B	$Y = -4.359X_1 + 3348$	구배
	외곽유형 A	$Y = -0.039X_1 + 2508$	운행속도
	외곽유형 B	$Y = 3,264$	없음

5 표준연비 산정모형 효과 검토

- 기존 모형과 본 연구 개발모형의 표준연비 예측치를 비교해 보면 본 연구 개발모형의 예측치가 실연비를 보다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오차(실연비-표준연비) 또한 기존 모형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존모형과 본 연구 개발모형의 노선별 실연비와 표준연비 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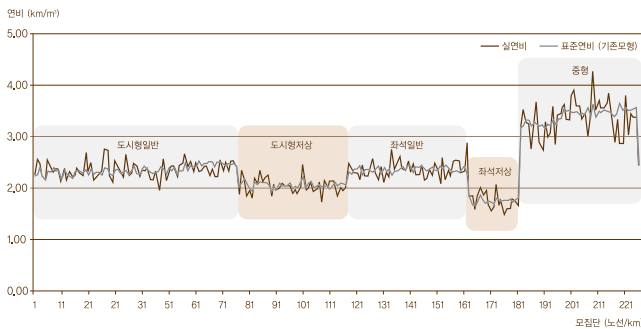
구분	기존모형	본연구 개발모형	비고
도시형 일반	-0.37 ~ -0.38	-0.24 ~ -0.31	오차감소
도시형 저상	-0.31 ~ -0.25	-0.26 ~ -0.21	오차감소
좌석 일반	-0.34 ~ -0.63	-0.27 ~ -0.27	오차감소
좌석 저상	-0.27 ~ -0.27	-0.20 ~ -0.14	오차감소
중형	-0.78 ~ -0.64	-0.39 ~ -0.22	오차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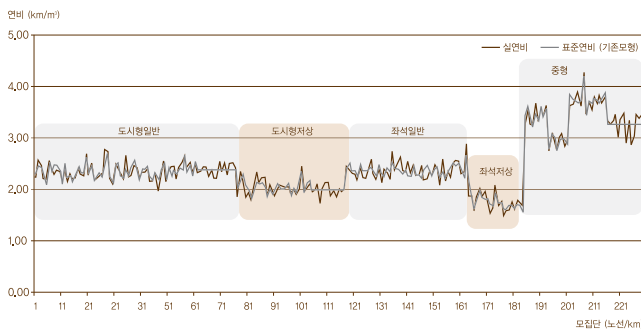
〈본 연구 개발모형의 노선별 실연비와 표준연비 오차〉

6 시내버스 연료비 절감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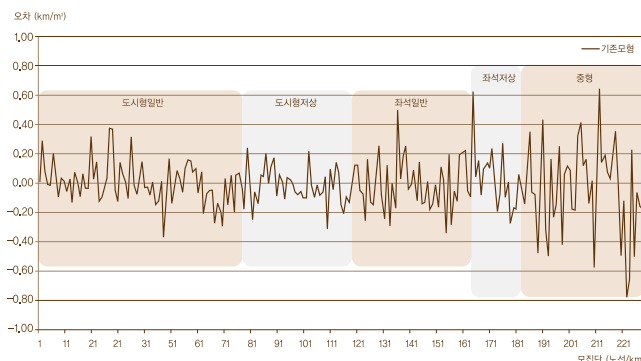
- 운전기사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
 - 같은 노선, 같은 차종이라 할지라도 운전기사에 따라 10~25% 정도 차이가 발생됨
 - 이는 운전기사의 운전습관(급출발, 급정거, 과속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철저한 관리 및 교육(에코 드라이브 과정 교육 등)의 확대가 필요함
 - 이는 시내버스티용객 입장에서 안전성 및 쾌적성 향상 등 서비스 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사항임
- 시내버스의 연비는 차종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므로 연비가 좋은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며, 연비와 교통혼잡(운행 속도) 간에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 및 우선처리 사업 등 시내버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CNG 하이브리드 버스의 경우 CNG 일반 버스보다 30% 이상 연비가 높게 나타나므로 대체차시 CNG 하이브리드 버스의 도입 검토 필요



〈기존 모형의 실연비와 표준연비 차이 그래프〉



〈본 연구 개발모형의 실연비와 표준연비 차이〉



〈기존 모형의 노선별 실연비와 표준연비 오차〉



경제동향

최근 대전지역 경제는 전월대비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물가가 보험세를 보였을 뿐, 소비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생산, 수출, 수입 모두 위축된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전년 동월대비로는 생산이 혼조세를 보이고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소비가 호조세이며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수출도 증가한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0.6% 수준을 유지하여 매우 안정된 모습임.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년도 말기에 반등국면을 보인 이후,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하강국면을 보여 경기가 침체되는 모습을 지속

하였고, 7월 소폭 반등하기도 하였으나, 8월 들어 소폭 하락하였음.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다만, 투자 등 민간 부문의 회복세가 아직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며, 미국 재정 양적 완화 리스크 등 대외 위험요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 활성화 등 정책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생활물가 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면서 지역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경 기

- 전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후퇴와 회복을 반복하는 가운데 말기에 반등국면을 보였으나,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하강국면을 보여 경기가 침체되는 모습을 보였고, 7월 소폭 반등하였으나, 8월 들어 다시 하락하였음.

생 산

- 2013년 8월 전월대비 생산과 출하는 감소하고 재고는 증가하여 위축된 모습이며, 전년동월대비로는 생산은 감소하고 출하와 재고는 증가하여 전월의 부진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 향후 생산은 절전대책 등 생산감소요인이 해소되는 등 상방요인과 추석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 하방요인이 혼재하나, 하방요인이 우세할 가능성 있음.

소 비

- 2013년 8월, 소비는 전월대비 대형소매점판매, 가스와 연탄소비량은 감소하였으나, 유류와 전력사용량, 자동차등록, 농수산물거래량 등은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가스소비량만 감소하였을 뿐, 관찰지표 대부분이 증가하였음. 전반적으로 전월대비로는 지난달의 혼조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며, 전년동월대비로는 지난달의 혼조세에서 벗어나 완전한 호조세를 보였음.

고 용

- 2013년 8월, 고용상황은 전월대비 취업자는 3개월째 감소하였으나, 실업자 역시 3개월째 감소하고 실업률도 6개월째 하락하여 전반적으로 5개월째 개선되는 모습임. 전년동월대비로도 취업자가 1년 이상 지속 증가한 가운데 실업자와 실업률도 6개월째 감소하락하여 고용상황은 매우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음.

물 가

- 2013년 8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농축산물의 대폭 하락과 석유류, 개인서비스에서 소폭 하락한 반면, 내구재와 섬유제품, 집세 등에서 상승하여 전월과 같은 보험세를 보임. 물가상승률은 0.62% 수준으로 지난달의 1.2% 수준보다 하락하여 최근 물가는 매우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

금 용

- 2013년 9월, 금융시장은 미국의 급격한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순매수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세가 지속되면서 주가는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함.

대 외 거 래

- 2013년 8월 전월대비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세로 반락함. 전년동월대비로는 수출은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수입은 생활용품, 전자전기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음. 전반적으로 수출은 최근 부진한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모습이고, 수입도 최근 전반적인 호조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임. 무역수지는 2월부터 흑자를 유지한 이후, 8월은 전월보다 흑자폭이 축소.

